

2024 년 1 월 12 일 “(주님을 아는 지식 2)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엡 1:15-19)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를 앞으로 몇주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엡 1:15~19 과 3:14~19 에서 바울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장:

- (1)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 (2)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 (3)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 (4) 성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소서

3 장의 기도:

- (1)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 (2)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 (3)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늘은 1 장 첫번째 기도를 살피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를 진심으로 알아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귀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귀은 인간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의 성경적 뜻은 스스로 그 분께로 돌아갈 수 없는 불능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해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는 두 단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1) 마음 속에 좋은 지식과 생각을 쌓아야 합니다. (2) 쌓인 지식을 통해 적절하고 유익한 모양과 방식으로 표현하고 작동할 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의 마음과 계획이 있었는데, 창조의 시점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 피조물들을 채우신 후에 아름답고 선한 조화를 이루어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마음 속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드러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고전 1:24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다 보면 지혜의 열매(창조와 구원의 축복)가 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 속한 내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reveal)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계획, 행하시는 일의 뜻을 알려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사람에게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배움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간 됨의 중요한 길입니다.

엡 5:1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머물면, 자기 중심적 시야와 방식으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자기중심성을 넘어 바르게 확장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모든 예배와 교제와 섬김 속에서 부요한 가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내게 임할까요?
2.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